

'진안형 기본사회' 실현 박차

전춘성 군수, 첫 현장 행정... 의료·요양 통합돌봄 현장에서 기본돌봄 실천 의지 다져

민선9기 출범식에서 군정 비전 '모두가 행복한 기본사회 진안'을 공식 선포한 전춘성 진안군수는 첫 현장 행정으로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현장을 찾았다.

군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기본돌봄부터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행보다.

전춘성 군수는 2일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통해 기본돌봄을 지원받고 있는 안천면의 한 가정을 방문했다. 이날 전 군수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직접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진안형 기본사회' 실현 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한 가구는 2020년 말 뇌졸중 발병 이후 외상 상태로 생활하고 있다. 마을 이장의 안내로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신청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현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지정된 진안군의료원에서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해 의료 처치와 돌봄 상담 등을 제공받고 있다. 이와 함께 식품 꾸러미와 조호물품 지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도 함께 지원받고 있다.

진안군이 추진하는 '진안형 기본사회'는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군민의 기본권을 보장



민선9기 출범식에서 군정 비전 '모두가 행복한 기본사회 진안'을 공식 선포한 전춘성 진안군수는 첫 현장 행정으로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현장을 찾았다.

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한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은 질병이나 장애, 노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병원이거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와 돌봄, 복지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선9기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민선9기 출범과 함께 선포한 '진안형 기본사회'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에서 실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첫 현장행정을 의료·요양 통합돌봄 현장에서 시작한 것도 군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고 기본돌봄부터 확실하게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프면 제때 치료받고, 돌봄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곁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촘촘한 기본돌봄 체계를 구축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진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내 집에서 누리는 진짜 편안한 일상'을 목표로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군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방문진료와 방문운동지도, 안심주거 환경개선 등 11개 지역 특화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며, '모두가 누리는 따뜻한 기본사회-기본돌봄' 실현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탄력

장수군, 번암면 원대론마을·계북면 어전마을 개조사업 공모 선정

장수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한 '2027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서 번암면 원대론마을과 계북면 어전마을이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은 주거·안전·위생 등 생활 기반이 취약한 농촌 마을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군은 총사업비 38억 원을 투입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은 안전시설 정비와 생활·위생

시설 개선, 노후주택 정비,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4개 부문으로 추진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슬레이트 지붕 개량, 민집 철거, 노후주택 집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래식 화장실 정비 등 생활위생 인프라 개선을 비롯해 노후 담장 정비, 보행안전도로 정비 등 안전기반시설 확충사업이 포함됐다.

주민 교육과 문화프로그램, 선진지 견학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제42회 무주군민의회 후보자 추천 접수

무주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군민을 발굴·시상하는 제42회 무주군민의회 후보자 추천을 오는 15일까지 접수한다.

무주군민의회는 지역의 명예를 높이고 사회 안정과 발전에 공헌한 군민에

게 수여하는 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산업근로장, 공익장, 효행장, 환경장, 애향장 등 6개 분야에서 각 1명씩 선정한다.

후보자 추천은 지역 내 기관과 사회단체, 학교 등 추천기관이 추천서와

공적조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무주군청 지치행정과 행정팀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무주군은 8월 말까지 후보자의 공적 사실과 현지 확인을 거쳐 군민의장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분야별 최종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무주=손송기 기자

안성면 덕곡마을 풍암관 개관

무주군, 주민 공동체 활성화·소득 창출 위한 복합공간 조성

무주군 안성면 덕곡마을에 주민 공동체 활성화와 소득 창출을 위한 복합공간인 '풍암관'이 문을 열었다.

무주군은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안성면 덕곡마을 풍암관을 2일 개관했다고 밝혔다.

풍암관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해 조성됐으며, 연면적 129.85㎡ 규모에 공용공간과 각종 편의시설을 갖췄다.

시설은 주민 공동체 활동 공간을 비롯해 공동급식소와 방문자센터, 다목적 공간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개관식은 덕곡새마을회와 무주농어촌종합지원센터 주관으로 열렸으며,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했다.

황인홍 군수는 "풍암관은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의 대표적인 성과이자 주민 주도형 공동체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민선 9기 무주군이 지향하는 기본사회가 이곳에서



부터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행사에서는 마을의 안녕과 풍수해 예방을 기원하는 풍암제도 함께 봉행됐으며, 이철희 덕곡마을 운영위원회 고문은 주민 화합과 성공적인 개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군수 표창을 받았다.

안성면 덕곡마을은 71세대 8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 대부분이 사과를 재배하고 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하며 사과잼 만들기과 천연염색, 사과고추장 담그기, 부각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무주=손송기 기자

진안군, 전국 유도 선수단 전지훈련 유치

진안군이 전국 유도 꿈나무 대표 선수단과 학교 훈련팀을 유치하며 스포츠마케팅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14일간 전국 유도 꿈나무 대표 선수단과 학교 훈련팀 등 250명 규모의 선수를 찾아 반디비체육센터에서 하계 전지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전지훈련은 체력 강화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집중 훈련으로 진행되며, 선수단과 지도자 등 관계자들의 장기 체류를 통해 숙박과 음식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군은 생활인구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해 왔다. 태권도와 역도, 썰매 등 다양한 종목의 전국 단위 전지훈련팀을 꾸준히 유치하며 스포츠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또한 전지훈련 선수단이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대관료 무료 지원, 지역 체육비 지원, 관광지 입장료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은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제10대 장수군의회, 개원식 갖고 본격 의정활동 돌입

장수군의회는 지난 1일 제10대 장수군의회 개원식을 개최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의정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개원식에 앞서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전반기 의정단을 선출했다. 의장에는 정상득 의원, 부의장에는 문재표 의원이 각각 선출됐으며, 행정복지위원장에 한선미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 임정권 의원을 선출하며 제10대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이어 열린 개원식에는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한 간부공무원과 전직 군의원, 기관·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해



제10대 장수군의회 의힘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개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의원선서, 의원 윤리강령 낭독, 개원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의원들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맡은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소방서, 휴가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화재예방대책 추진

장수소방서(서장 한동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무더위와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에 맞춰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설 관계자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수소방서는 한누리영화관을 비롯한 관내 다중이용시설 23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화재안전조사와 현장행정지도를 집중 전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유영찬 대응예방과장은 외무 자연휴양림 등을 직접 방문해 현장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주요 지도 내용은 여름철 다중이용시설 피난경로 점검 및 화재예방 당부, 여름철 냉난방기 사용량 증가 등에 따른 전기화재 예방 당부, 침수피해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철저 등이다.

특히 폭염으로 인한 에어컨 및 냉난방기 장시간 가동 시 발생하기 쉬운 배선 불량, 실외기 주변 먼지 적재 등 전기적 요인의 화재 위험성을 경고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 침수 시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한 유지관리를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축산농가 맞춤형 종합컨설팅

최근 한우 가격 하락, 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종합컨설팅 제공을 통한 애로 기술 해결에 나서 농길을 끌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과 진안군농업기술센터는 진안 홍삼한우협동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사양 관리 분야 전문가 종합 컨설팅을 실시했다.

사전 기술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축산농가 컨설팅은 올해로 16년 차를 맞이했으며, 지역 축산농가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열염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